



iSSUE BRIEFING

지역을 살리는 농촌마을 자치연금 실천사례와 확대방안

이슈브리핑

2021. 11. 18 vol.254

연구진

황영모_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
배균기_산업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
정호중_산업경제연구부 전문연구원

1. 농촌마을의 자치연금에 주목하는 이유

- 그동안 농촌마을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농촌활력을 목적으로 마을만들기 정책 추진에 국가와 지역에서 힘을 쏟아 왔으나, 인구가 감소하는 '축소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는 눈에 띠는 체감할 수준의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농촌마을은 일상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일터, 삶터, 쉼터'로서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면서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寶樓)로 부각되고 있어 사회적인 의미는 갈수록 강조되고 있음
- 마을 공동체는 '마을'이라는 공간적인 긴밀성을 바탕으로 유대감을 공유하는 것을 뜻하는데, 개인적인 참여를 넘어 공동의 참여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의 기초 단위로도 사회적 의미를 가짐(김근혜 외, 2017)
- 한편 농촌마을이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동의 장(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거나 재구축하는 다양한 실천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어 왔음¹⁾
- 농촌마을은 '사람의 공동화(空洞化) → 공동체의 공동화 → 마을의 한계화(限界化)'로 이어지고 있는데, '과거의 번영 시대'에 기대는 '소극성과 관성'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주민 스스로의 의사로 마을의 운영구조를 재편하는 '혁신성'이 매우 중요함
- 이러한 관점에서 농촌마을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사업모델을 실행하여, 그 성과를 마을 공동체의 공동 이익으로 환원하고 있는 '농촌마을 자치연금' 사례에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농촌마을 자치연금 사례로는 '정읍시 송죽마을, 포천시 교동장독대마을, 태안군 만수동 어촌계'를 꼽을 수 있는데, 공동체 사업 수익을 어르신께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특히 태양광 발전과 체험·가공 공동사업 수익으로 '마을자치연금'을 주는 익산시 '성당포구마을'은 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결합된 혁신 사례임
- 당장의 손익에 매이지 않는 청장년층의 이해와 노력, 그동안 마을을 가꾸어온 어르신의 헌신이 주민의 합의를 통해 '마을자치연금'으로 구현된 것이며, 이것이 곧 마을 공동체가 구성원(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지켜가는 방식임
- '모든 주민이 공동체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기에,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가족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 마을자치연금 실행의 기본정신으로 꼽을 수 있음
- 이 글은 농촌마을이 담당해온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마을 주민이 주도하여 경제적 활동 수익을 '마을연금화'하고, 마을 주민에게 지급하는 '농촌마을 자치연금'의 의의를 짚어보고, 확대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음
- 특히, 전라북도(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는 '농촌마을 자치연금'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농촌마을 활성화 정책으로 확산하기 위한 주요내용을 제안하고자 함

1) 주민 공동의 장(場)은 공동공간, 공동시설, 공동시스템, 공동서비스, 공동이벤트, 공동문화를 총칭함. 자세한 내용은 다무라 아키라(2005)를 참조

지역을 살리는 농촌마을 자치연금 실천사례와 확대방안

2. 주민주도 농어촌마을연금, 대표사례

- 전국적으로 농어촌 마을단위에서 마을자치연금을 실험하는 대표 사례로 ① 정읍시 송죽마을, ②포천시 교동장독대마을, ③태안군 만수동 어촌계' 등을 꼽을 수 있음

① 정읍시 '송죽마을', 마을기업 수익을 노령연금으로

- 정읍시 '송죽마을'은 63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우리나라 최초의 농촌마을 노령연금 사례로 꼽을 수 있음
- 송죽마을은 2012년 정읍시가 마을만들기 자체 시책으로 추진한 '지역창안 대회'에 참여하면서 주민참여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공동사업 역량 을 강화해 왔음
- 이후 '쑥·모시 작목반'을 조직하여 귀촌 청년이 만든 가공회사(농업회사법인 솔티) '솔티애떡'의 재료를 공동 생산하는 계약재배를 추진하였고, 이를 계 기로 2013년 마을기업인 '내장산 쑥모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음
- 2014년부터 송죽마을은 마을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마을기업의 수익으로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마을주민이 마을기업과 계약재배로 생산하는 쑥·모시의 재배수익의 일부를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농업회사법인 '솔티'는 모시잎을 시장가 대비 300원/kg 높게 계약재배하고 그 차액을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음
- 지원대상은 20년 이상 마을에서 거주하며 마을공동체에 기여한 80세 이상의 고령자이며,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지급 첫해인 2014년 4명에서 시작)
-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는 마을기업의 취지와 목적에 기반하여 농촌마을을 지켜온 어른 세대의 생계를 배려'하는 '마을노령연금'의 성격을 가짐
- 송죽마을의 마을연금은 기획과 추진 과정에서 마을대표의 리더십으로 주민 의 참여·합의를 이끌어 내고, 마을기업이 지역법인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연금의 재정을 마련한 것을 성공요인으로 꼽을 수 있음
- '송죽마을 연금제도 정관'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중이며, 모시잎 계약재배에만 의존하는 재원을 마을축제·체험 등으로 수익구조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음



자료 : KBS전주방송총국 뉴스(2021.6.28), '모시'로 하나 된 마을공동체. 정읍 송죽마을'

② 포천시 ‘교동 장독대마을’, 농촌관광 이익을 실버사랑연금으로

- 포천시 ‘교동 장독대마을’은 81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농촌마을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마을에 기여한 어른신께 ‘실버사랑연금’을 주는 사례임
- 이 마을은 한탄강 댐 개발로 삶의 터전이 바뀌어 새로 삶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정착하고 마을만들기 방식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면서 시작된 체험마을임
- 2008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콧감, 전통 장류체험, 뽕나무·누에 6차가공, 마을카페, 주말농장 등을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하고 있음
- 2018년 행정안전부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19년 농협중앙회의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도 수상하며, 농촌관광사업 ‘으뜸 촌’으로 선정되었음²⁾
- 2018년부터 시작한 실버사랑연금은 최소 6개월 이상 마을에 거주한 70세 이상 어르신(70세 이상)에게 매월 5만원씩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교동 장독대 마을은 공동사업 수익의 10%를 마을의 기금으로 적립하고 실버사랑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공동체 사업의 조합원 출자배당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마을연금의 재원을 전적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지급액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온라인 판매와 가족체류형 숙박 등으로 사업의 활로를 열고 있음
- 마을의 이러한 마을만들기 노력으로 귀농·귀촌 가구도 늘었고, 미래세대인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에게 축하금도 주고 있음
- 교동 장독대 마을의 마을자치연금 사례는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어 마을 공동체를 지켜가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자료 : 경기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블로그(<https://blog.naver.com/gevillage>)

③ 태안군 ‘만수동 어촌계’, 공유자원 이익을 마을연금으로

- 태안군 ‘만수동 어촌계’는 주민 125명이 살고 있는 보편적인 어촌마을이지만, 양식장·갯벌이라는 마을의 공유자원 수익으로 고령자에게 ‘마을연금’을 주는 사례임
- 만수동 어촌계의 고령자 마을연금은 2014년 신규 어촌계장이 부임한 이후 추진되었는데, 2년에 걸쳐 주민들을 설득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거쳤음
- 2015년 어촌계 대의원회에서 과거 마을 양식장 조성에 기여한 부모 세대 어

2)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018년부터 전국의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관광농원을 대상으로 매년 4개 부문(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등급을 평가하여 모두 1등급인 마을을 ‘으뜸촌’으로 선정하고 있음

지역을 살리는 농촌마을 자치연금 실천사례와 확대방안

총계원 중 경제활동이 어려운 주민에게 최소한 수입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음

- 과정에서 세대 간 연대의 불화실성 논쟁과 경제적 안정성 문제제기가 있어 다수가 반대하였으나, 시범운영을 통해 수익성을 파악한 후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함
- 그해 마침 수협과 태안군의 협조로 큰 바지락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판로를 마련하면서 갯벌과 양식장 수익구조가 변화되었고, 어촌계원 1인당 약 180 만원 이상의 소득이 증가하였음
- 이에 2016년부터 고령자(80세 이상), 중증환자, 장애인 등 경제활동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월 20~30만원을 마을자치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만수동 어촌마을 자치연금은 어촌계에 가입한 마을주민에게 마을공동의 양식장에서 바지락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판매를 통해 기금을 적립하는 구조임
- 공동 양식장 생산량의 5%는 어촌계 운영비로 우선 할당하고, 수익의 70%는 어촌계원에게 균등 분배하고, 나머지 30%는 마을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어촌마을의 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따라 장기적인 지속성 문제가 있지만, 6가구(18명)가 정착하였으며, 마을은 귀어(歸漁)를 장려하기 위해 어촌계 가입조건(거주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등)을 완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20.12.30), '위드 코로나 시대, 다시 마을이다-태안 만수동마을 어촌계'

구 분	정읍시-송죽마을	포천시-교동장독대마을	태안군-만수동어촌계
재 원	공동사업 소득의 일부 (모시잎 공동판매)	공동사업 소득의 일부 (농산물 가공·체험·숙박 등)	공동사업 소득의 일부 (바지락 공동양식·채취·판매)
	마을소재 가공조직 계약재배 수익의 일부를 연금으로 전환	공동체 사업 기반 활용 조합원 출자배당 자율제한	공유지(갯벌)의 공동사업 생산성 활용
한 계	지역기업 선의에 의존 작황과 시장가 연동 지급액 유동적	공동체 사업에 의존 실적에 따라 지급액 유동적 수익금 10%만 활용	갯벌이라는 공유자원의 특성
재정방식	단순 기부형	부과방식	부과방식
활용비율	100% (단, 추가수익분에 한정)	10%	30%
지급연령	80세 이상	70세 이상	80세 이상 (고령·장애·질병 등 경제활동 불가자)
거주조건	20년 이상 마을거주	6개월 이상 마을거주	1년(어촌계가입조건-마을거주1년)
지급조건	지급연령 및 거주요건 충족	지급연령 및 거주요건 충족	지급연령 및 거주요건 충족 (질병·장애 발생 시)
지급액(월)	10만원 (년간 120만원)	5만원 (년간 60만원)	20~30만원 (년간 240~360만원)

자료 : 익산시(2019),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도입모델 개발연구'에서 수정

〈표1〉 농어촌 마을연금 대표 사례 주요특징(요약)

3. 농촌마을·공공기관 마을자치연금, 혁신사례

- 최근 농촌마을의 주민역량과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이 결합된 마을자치연금을 실험하는 대표 사례로 ‘익산시 성당포구마을’에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익산시 성당포구마을의 마을자치연금은 농촌마을 주민의 공동체 사업기반(역량)에 공공기관의 자원(역량)이 결합된 이른바 ‘새로운 공공(公共)³⁾’의 혁신사례로 평가됨

① 성당포구마을 자치연금의 추진경과

- 성당포구마을은 고려시대부터 세곡을 운반하던 포구의 역사와 농촌문화 환경을 활용하여 농촌체험·숙박 등의 공동체 사업으로 농촌활력을 도모하고 있는 농촌마을임
- 2006년 농어촌전통테마마을, 2009년 농촌체험휴양마을, 2010년 팜스테이마을, 2012년 전통발효음식마을, 2015년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인증, 2016년 체험관광형슬로푸드마을로 지정되었고, 2020년 농촌마을가꾸기경진대회 우수마을로 선정되었음
- 농촌마을 활력과 소득을 향상시키고 여러 공동체 정책사업으로 활로를 열기 위해 힘써 왔지만, 농촌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계절적 변동성과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의 한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음
- 그러던 중 2019년 익산시와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은 농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로의 필요와 전문성을 결합하여 ‘마을자치연금’을 2년에 걸쳐 기획하고 공공기관 등의 협업사업으로 내용을 만들기 시작함
-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은 농촌마을 자치연금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실사, 벤치마킹, 모델개발 연구 등을 추진하였고, 2019년 12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추진에 나섬
- 2020년 12월 마을자치연금 사업에 참여할 이전 협업기관(익산시·국민연금공단·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한국전기안전공사·농업기술실용화재단·새만금개발공사·한솔테크닉스)간 업무협약을 체결함
- 이렇게 추진한 마을자치연금 1호 사업으로 성당포구마을을 선정하고 2021년 3월 마을공동체 소득확대를 위한 기반시설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착공하였으며, 2021년 8월부터 마을연금을 28명의 주민에게 월 10만원 지급하기 시작함
- 2021년 8월부터 국민연금공단과 익산시는 마을자치연금 표준운영모델과 추진절차를 마련하고,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마을자치연금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음

3) 농촌마을 쇠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획일적·평균적 지원방식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공공기관 등이 ‘새로운 공공(公共)’이 되어 주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小田切?美(2014), ‘농산촌은 소멸하지 않는다(農山村は消滅しない)’, 岩波新書를 참조

지역을 살리는 농촌마을 자치연금 실천사례와 확대방안



자료 : KBS 전주방송총국 뉴스(2021.7.14.)

구 분	주요내용
2019.5~7.	마을자치연금 실행 가능성 분석을 위한 현장실사, 벤치마킹
2019. 12.	마을자치연금 1호 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 수행
2019. 12.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공단-의산시)
2020. 12.	참여기관 합동 의산시 마을자치연금 도입 업무협약 체결(의산시,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새만금개발공사, 한솔테크닉스 등)
2021. 3.	마을 공동체 소득 확대를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착공
2021. 7.	1호 마을 태양광 시설 준공식 및 전국 확대 추진
2021. 8.	성당포구마을 주민(28명)에게 마을자치연금 지급 (월 10만원)
2021 중	마을자치연금 설명 및 확산 추진, 표준운영 매뉴얼과 추진절차 등 (국토부, 전북도·경남도, 완주군·김제시·진안군·나주시·영광군·거제시·수원시·이천시·대전 대덕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 : 국민연금공단(2021), '마을자치연금 시행을 위한 공단의 노력과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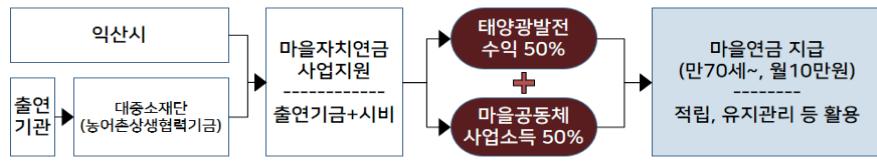
② 성당포구마을 자치연금의 실행구조

- 성당포구마을의 마을자치연금은 '농촌마을'의 공동체 역량에 '공공기관'의 자원이 결합한 '새로운 공공(公共)' 방식의 사업모델을 채택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과 의산시는 공동으로 마을자치연금을 설계하고, 필요 설비를 지원하며, 이전 공공기관은 협업기관으로 시설 설비를 재정과 현물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구조임⁴⁾
- 성당포구마을은 공동체 역량을 토대로 주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를 이끌어 내고, 사업실행 조직으로 '성당포구 마을자치연금 발전소(유한회사)'를 설립함
- 총 사업비는 1.51억원으로 의산시가 8,000만원의 재정지원, 협업기관이 7,100만원의 재정과 현물을 출연하여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70kw 규모로 설치하였음
- 마을자치연금의 재원은 태양광 발전 수익과 마을공동체 사업소득의 일부를 연금으로 지급 활용하는 구조이며, 고령주민에게 연금 지급된 잔액 등을 발전설비 유지 관리 비용 등으로 활용함
- 마을자치연금의 지급대상은 성당포구마을 영농조합 조합원(62명) 중, 만 70세 이상 주민으로 첫 지급대상은 28명임(마을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사람은 제외)

〈표2〉 국민연금공단과 의산시의 농촌마을 자치연금 추진과정

4) 협업기관으로 재정지원은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새만금개발공사, 우리은행 등이며, 한솔테크닉스은 현물(패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출연함

〈그림1〉 성당포구마을 마을자치연금의 운영구조



자료 : 익산시·국민연금공단(2021)

〈표3〉 성당포구마을 자치연금 실행의 주체별 역할

주체	주요역할
익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공동체 선정기준 설정 및 공모 실시, 수의의 다각화 및 극대화 경영 컨설팅 지원 태양광 발전설비 예산지원, 마을 내 전담인력 관리 연금지급 등 사업전반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정기 또는 수시)
국민연금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내외 자료분석 및 사업 기본모델 설계, 연금제도 컨설팅 및 지급 가이드라인 제시 태양광 발전설비 예산지원, 국민연금 나눔재단 조직(마을자치연금 지급 및 관리 주체)
협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수익창출 시설 또는 설비)을 위한 재정·현물지원(출연) 출연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지원
마을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회를 통한 의견수렴 및 마을연금 제안에 대한 규약 마련 매월 공동체 소득의 일부를 연금지급에 활용 가능하도록 적립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 수익창출을 위한 노력 경주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통한 구성원 만족도 향상에 노력 마을주민 간 연대를 통한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

자료 : 익산시(2021), '마을자치연금 추진경과'

③ 성당포구마을 자치연금의 효과

- 성당포구마을-익산시-국민연금공단이 새롭게 실험하고 있는 '마을자치연금'은 마을 공동체의 공동생산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금을 활용하여 고령 등 소득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임(국민연금공단, 2021)
- 마을자치연금은 '자율성, 자치성, 지속가능성, 사회공헌'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됨
 - 자율성 : 마을공동체의 자치연금 도입과 실행을 마을 주민의 필요와 요구로 스스로 결정하여 추진
 - 자치성 : 지급금액·대상·기간 등을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인 '자치'를 통해 결정
 - 지속가능성 : 마을 수익 지속가능성 보완 위해 태양광 설비 등 적합한 시설을 마련
 - 사회공헌 :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등)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공적연금 제도를 보완
- 이러한 농촌마을의 이익공유형 마을자치연금은 성당포구마을 주민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영역 등에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음
 - "벌써 귀농·귀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앞으로 오실 분들도 많이 있어요"(마을이장)
 - "마음이 좋지요,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돈 10만원은 큰 돈이 아닙니까?"(주민 A)
 -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음이 더 풍족해 질 겁니다."(주민 B)
- 태양광을 활용한 마을 공동체 사업기반은 예상발전량이 89.4Mwh인데, 공공기관이 ESG에 기반한 사회공헌 역할을 담당하여 탄소배출 감축 등 효과도 높게 평가됨⁵⁾

5) 화력발전 대비 석유 19.04톤 절감 또는 어린 소나무 기준 14,699그루 탄소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지역을 살리는 농촌마을 자치연금 실천사례와 확대방안



자료 : 국민연금공단(2021)

4. 농촌마을자치연금, 확대방안

- 익산시 성당포구마을의 마을자치연금은 마을 공동체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마을의 일정한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여, 공동체 구성원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활력모델로서 의미가 있음
- 이에 성당포구마을의 마을자치연금의 사업모델을 정립하여 농촌마을로 확산·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안하고자 함

① 마을자치연금의 기본구조

○ 마을자치연금의 기본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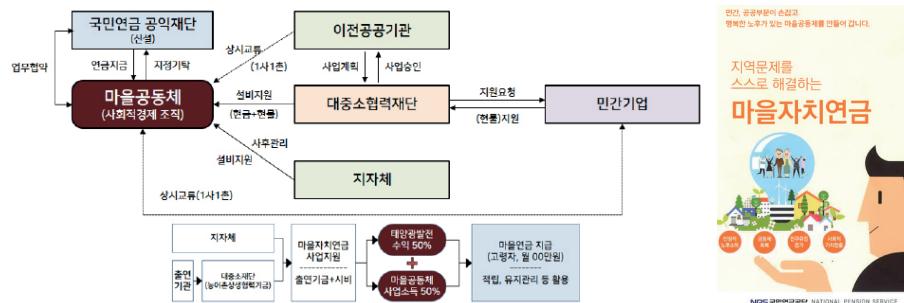
- 마을공동체가 공동의 생산활동을 통해 창출하는 수익을 활용해 고령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연금⁶⁾

○ 마을자치연금의 재원구조

- 마을공동체가 진행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생산×가공×체험×판매×숙박 등)의 소득 중 일부 +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등) 등 신규 시설 등을 통한 수익사업(활동)⁷⁾

○ 마을자치연금의 운영체계

- ‘지자체+(이전)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이 마을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마을공동체’에 지원⁸⁾



○ 마을자치연금의 마을조건

- 마을은 마을공동체 사업조직(사회적경제조직 등)을 설립하여 공동체 사업역량을 갖추고 있을 것

〈그림2〉 마을자치연금의 기본 구조

6) 마을자치연금 용어에 대한 주요한 논의는 문현경(2019)를 참조

7) 임산물가공시설, 농산물 저온저장고, 숙박시설, 사회적 툴봄농장 등을 검토할 수 있음

8) 이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공식화를 위해 대중소협력재단이 마을자치연금 시설 펀드 조성 및 기관의 기금 수탁·영수처리 등을 담당

- 마을공동체가 공동의 사업기반을 갖추고 일정하게 경제적 수익을 올리는 지속 가능성이 있을 것
- 마을자치연금 조성을 위해 필요한 마을의 공유자원 이용에 관한 설비와 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 마을공동의 수익사업을 위해 출자와 이익공유 등에 대한 구성원 합의와 불특정 시비가 없을 것

〈표4〉 마을만들기의 의의와 특징

주요특징	주요내용
①풍부해지는 직접 민주주의	다양한 토론과 갈등의 조정이 매일의 생활에서 발생하고 해결되는 실천의 과정
②상호부조 지역순환의 경제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생산-소비의 지역순환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과정
③사회적 필요의 공동체 해결	돌봄·보육·교육·주거 등 사회적 필요를 해결해 나가는 기초공간이자 사회적 과정
④자연환경과의 공존과 보전	환경과 자연의 복원력을 유지하고 에너지 문제를 지역적으로 실천하고 접근하는 과정

자료 : 2015 전국마을선언에서 작성

② 마을자치연금의 확대방안

- 첫째, 마을자치연금의 기본모델을 확립하고, 실행을 위한 정책여건을 만들고, 농촌마을만들기 정책에 적용해 나가야 함
 - 마을자치연금의 기본모델은 국민연금공단이 익산시 성당포구마을을 통한 내용을 중심으로 확립하여 제시(기본구조, 추진절차, 실행체계, 수익방안, 운용모델 등)⁹⁾
 - 마을자치연금의 실행여건을 만들기 위해 '농촌마을,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우호적인 사회적 여건을 조성¹⁰⁾
 - 마을자치연금 모델을 주민주도·민관협력의 '마을만들기 2.0' 정책혁신(개편)으로 반영하고, 공동체의 이익공유, 세대 간 공생, 지역사회돌봄 등으로 영역을 확장
- 둘째, 지자체(익산시)와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이 시작한 마을자치연금의 모델을 국가(부처)의 관련 정책사업에 반영을 추진해 나가야 함
 - 정부 부처별 사업화를 안내하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도하여 관련 부처(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와 협의를 추진(지역균형뉴딜 정책 등)
 - 지역 이전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ESG 경영전략 내에 '지역사회 공헌방안'의 대표사례로 마을자치연금 모델을 제시하고 기관별 시행계획 등에 반영을 유도
 - 농촌마을이 신재생 에너지와 공유자원 사업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익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고 관련된 정책지침 개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을 추진
 -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추진 근거 마련을 위하여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을 개정하거나 필요시 새롭게 제정을 추진
- 셋째, 농촌지역의 특성과 도시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마을자치연금을 도입·실천하는 대표 마을을 늘리기 위해 부처의 정책 연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함

9)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성당포구마을의 마을자치연금 사례를 토대로 사업모델을 확립하여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확산을 추진 중임.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2021), '마을자치연금 표준 운영절차'를 참조

[추진절차] 협업체계 구성(국민연금공단)→대상마을 선정(지자체)→펀딩 및 시설지원(협업체계)→적정연금 설정(국민연금공단)→연금지급 신청(지자체)→수익금 적립(기탁)(마을법인 또는 기관)→연금지급(마을법인)

10)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는 마을자치연금 시범모델(성당포구마을) 사례를 기반으로 참여 확대를 '농어촌 복지지원 사업(마을자치연금)' 추진 중임

지역을 살리는 농촌마을 자치연금 실천사례와 확대방안

- ‘농촌형 마을자치연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기 조성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우선 대상으로 마을자치연금화 프로그램을 추진(농촌마을만들기 ver 2.0)
 - 전국 1,147개소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중 약 10%(120개)를 우선 추진, 마을당 2억원의 사업비 지원 (국비 30%, 지방비 50%, 기관·기업 20%)
 - 농촌협약(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세부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익 시설 계획 등을 지원)
 - 마을공동의 사업추진 역량과 설비 설치 적합 마을을 우선 추진하면서 단계별로 확대
- ‘도시형 마을자치연금’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지역의 실제 생활권 범위 마을의 주민역량에 기초하여 추진 (시범마을로 추진)
 -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지구와 ‘도시지역 새뜰마을 사업’ 중 공동체 사업역량을 갖춘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새뜰마을 사업의 평가(인센티브) 메뉴로 반영을 검토
 - 도시 마을 특성(범위와 구성 등)을 고려, 공동체 사업역량과 설비 설치 적합 마을 우선
- 넷째, 전라북도(익산시)에서 시작한 마을자치연금을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사회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혁신거점(허브)으로 ‘마을자치연금 연수소(研修所)’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높음
 - 마을자치연금 기본모델에 근거하여 시행과 확산을 촉진하는 교육·지원 조직(기구)으로 성당포구마을에 설치·운영하여 상징성을 제고
 - 마을자치연금 사례 확산을 위한 교육,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등의 기능을 하며, 정부 정책화 단계에서는 정부의 운영지원을 통해 규모 및 기능, 영역을 확대해 나감^[11]

1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는 마을자치연금 시범모델(성당포구마을) 사례를 기반으로 참여 확대를 ‘농어촌 복지지원 사업(마을자치연금)’ 추진 중임

〈참고문헌〉

- 국민연금공단(2021), ‘마을자치연금 표준 운영절차’.
국민연금공단(2021),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자치연금’ 팜플렛.
국민연금공단(2021), ‘마을자치연금 사업설명회’, 발표자료.
다무라 아키라, ‘마을만들기의 발상’, 강혜정 옮김, 소화, 2005.
문현경(2019), ‘마을연금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 연구’, 국민연금공단(미발간).
익산시(2019), ‘익산시 마을연금제 도입 모델 개발연구’, 익산시.
익산시(2021), ‘농촌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자치연금 확대방안’, 내부자료.
황영모(2021), ‘농촌마을 자치연금, 의미와 확대방안’, 익산시 전문가토론회 발표자료.



이슈브리핑

2021. 11. 18 vol.254



박해이 | 권현남 | 박행처 | 전불연구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